

그러나 朝日의 조사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의 수준 정도로」가 55%였던 점과, NHK의 조사에서는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가 반수 이상으로 과거의 조사와 별로 다르지 않은 점에서 생각하면, 불안을 느끼면서도 사용해야 한다는 일보 물러선 곳에서 냉정히 보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있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다.

단 한가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朝日의 조사에서 「원자력은 인간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위험성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56%나 있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인간에게는 원자력을 안전하게 사용할 능력이 없으니까 중지하자는 말이다.

TMI사고와 체르노빌사고가 그것을 증명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과연 「인간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결정하여 영원히 연구, 개발, 사용을 중단해야만 하는 것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

'89會計年度 原子力豫算案에서 PA對策 대폭 強化

일본과학기술청의 1989회계년도 원자력관계 예산은 일반회계와 電源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816억4천만엔(前年度에 비해 3.7% 증액)이 되어, 거의 모든 정책·사업·계획을 확보했다.

1989회계연도에는 원자력을 포함한 과학기술 홍보의 충실화를 비롯해, 動燃의 FBR 원자로 「몬주」의 건설이 마무리단계에 이르렀으며, 原研이 구상한 고온공학시험연구로의 건설이 시작된다. 이밖에 原研과 理研의 大型放射光(SOR) 施設의 설계에 착수한다.

1989회계연도 예산에서는 최근 새로운 전개를 나타내는 반원자력운동에 대응하여 홍보예산을 약 19억엔으로 대폭 증가시켜 팜플렛, 매스 미디어 등에 의한 PR 및 과기청의 강사파견제도(PR캐러밴隊) 등 一般大衆의 퍼블릭·악셉턴스(PA)대책을 강화한다.

또 이에 더하여 IAEA와 OECD/NEA에 국제기관 각출금을 새로이 계상, 국제수준에서의 PA활동을 추진하는 등 홍보체제의 충실에 중점을 두고 있다.

通産省도 弘報強化에 重點

日本 통산성의 1989회계연도 원자력관계 예

산안은 일반회계 11억3천2백만엔(전년도에 비해 7.7% 증액), 전원특별회계 다양화계정 273억2천만엔(전년도에 비해 1.7 증액), 전원특별회계 입지계정 1,420억 8천5백만엔(전년도에 비해 17.1% 증액, 과기청, 원자력 이외 포함), 재정투융자 1,788억엔(개발은행 원자력범위내, 金鑛事業團分)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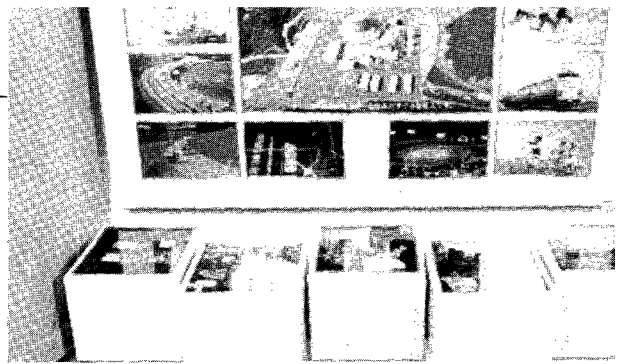
이번의 예산안은 최근의 원자력비판운동의 동향에 입각하여 퍼블릭·악셉턴스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구체적으로는 전원특별회계의 전원입지 추진조정 등 위탁비가 1988회계년도의 15억4,900만엔에서 28억 8,800만엔으로 증가한 것을 비롯해 핵연료사이클관계 추진조정 등 위탁비(2억 8,900만엔 → 22억 5,300만엔), 홍보안전 등 대책교부금(9억 4,100만엔 → 14억 1,900만엔)도 모두 증액되어 대책이 강화되었다. 강연회, 강사파견 등을 통해 원자력발전의 필요성, 안전성에 대해 전국적인 홍보를 전개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원입지계정에서는 원자력발전시설 등 주변교부금에 대해 기업을 위한 교부단가를 倍增하여 기업유치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電力移出縣 등 교부금에 대해서도 원자력발전을 特別割増으로 하여 입지추진을 도모하도록 결정하

었다.

또 靑林縣 六個所村의 연료사이클 3개 시설에 대해서도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사업 추진비보조금 14억2,000만엔이 인정되었으며, 계속 지원을 해 간다.

또 원자레이저법농축에 대해서는 1989회계연도부터 새로 금속우라늄 생산시스템 조사에 착수하는 외에, 화학우라늄법에 대해서도 2개년계획으로 종합화시험을 추가 실시한다.



이밖에 발전로관계에서는 경수로개량 기술확증시험 등 위탁비 94억2,400만엔, 발전용 신형로기술확증시험 위탁비 44억8,200만엔이 인정되었다.

特 輯 世界各國의 原子力PA와 輿論動向

카나다 **카나다에서 原子力技術의 PA**

다음은 1988년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던 「범태평양원자력협력위원회 (PBNCC)」의 Public Acceptance 실무그룹회의에서 카나다原子力公社 부사장인 Ron Veilleux씨가 발표한 『原子力技術의 Public Acceptance』라는 내용과 역시 같은 기간에 카나다原子力協會 (CNA)가 전문여론조사기관인 「Decina연구소」에 위탁하여 조사한 『원자력이용에 대한 카나다 국민의 자세』라는 내용을 함께 요약정리한 것이다.

카나다의 原子力發電事業

카나다의 原子力發電事業은 국영기관(Crown Corporation)인 카나다원자력공사(AECL)가 이 나라 최대 전력회사인 온타리오·하이드로사와 기타 원자력산업계의 지원을 받아 설계하고 개발한 CANDU원자로에 기반을 둔 것이다. 현재 카나다에는 18기의 CANDU原電이 가동되고 있고, 4기가 건설중에 있다. 1987년말 현재 原子力發電量은 총 72,888GWh에 이르고 있으며, 이것은 전체 발전량의 15.1%에 해당하는 것이다.

현재 건설중인 4기의 原電은 온타리오주 Darlington 原電으로서 총 3,600MWe용량이며, 1992년 상업가동 예정이다.

CANDU원자로는 세계 어느 원자로 보다는 좋은 운전기록을 갖고 있다. Nuclear Engineering International지가 밝힌대로 가동률이 좋은 세계 10대 原電중(500MWe 이상급) 7기가 CANDU인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反原電活動

카나다의 反原電運動은 지난 몇년동안 별로 수그러지지 않았다. 카나다에는 실제로 많은 反原電團體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Energy Probe」, 「Green Peace」, 「Canadian Coalition for Nuclear Responsibility」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이 문제로 삼고 있는 주요 쟁점으로는 CANDU 爐의 안전성과 경제성에서 부터 폐기물과 食品